



HD현대, 네팔 호우 피해현장 복구 지원

HD현대가 홍수로 피해를 입은 네팔의 복구를 돕기 위해 건설장비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HD현대는 네팔 중 북부 바그마티주에 중형 굴착기 20대와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물품은 담요와 식기, 위생용품, 방수포 등으로 구성됐다. /HD현대



LG생활건강, '2026 그린벨류 유스 캠프' 성료

LG생활건강은 지난 8월 28~29일 강원도 강릉에서 청년 대상 환경 프로그램 '2026 그린벨류 유스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들은 기후 위기, 탄소 중립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토론했다. 또 강릉 옥계해변에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등 해변 정화활동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스마일게이트, 지역아동센터에 새활용 우산 기부

스마일게이트는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새활용 우산 83개를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조직문화 프로그램인 '톡톡킵'을 통해 마련됐다. 연합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약 1400명의 아동을 위해 우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세브일레븐-경희대, 교육·연구 과정 마무리

세브일레븐은 지난해 8월 경희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두 차례 진행한 교육·연구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편의점 운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안을 연구했다. /세브일레븐

경희대 미술대학 60주년 전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의 60년 예술사가 거장부터 신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 138점의 전시로 다시 펼쳐진다.

경희대 미술대학은 설립 6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교내 미술관 KUMA 1~4층 전관에서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TIME ARCHIVE 60, 다시 선언하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66년 설립 이후 경희대 미술대학이 쌓아온 예술적 성과와 교육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직 교강사와 명예·석좌교수, 동문 작가, 학부·대학원 재학생 등 138명이 참여한다. /이현진 기자 ihj@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인간 중심 디자인 비전 제시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전시 주제 '디자인은 사랑의 표현' OLED TV에 14개 아트웍 담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예술을 결합한 전시를 통해 제품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까지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글로벌 디자인 행사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 2026'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디자인 마이애미는 세계 각국의 갤러리와 디자이너, 브랜드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디자인 행사다.

이번 전시 주제는 'Design is an Act of Love(디자인은 사랑의 표현)'다. 삼성전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출발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비전을 전시 전반에 담았다.

전시에는 한국 아티스트 14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뮤직 스튜디오 5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갤럭시 Z



'디자인 마이애미 서울2026' 삼성전자 전시관.

/삼성전자

폴드8 등 삼성전자의 14개 제품을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와 이미지로 재해석했다.

일부 아티스트는 작품을 구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 아티스트 고유의 시각과 창의성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되 AI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표현 영역을 넓히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아티스트들이 완성한 14개 아트웍

는 삼성전자의 2026년형 플래그십 OLED TV 'SH95'를 통해 선보인다. 각각 다른 소재와 형태로 제작된 14개의 커스텀 프레임은 TV에 적용해 하나의 제품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는 '익스프레시브 디자인(Expressive Design)'을 구현했다.

SH95에는 화면이 메탈 플레이트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트 레이어 디자인(Float Layer Design)'이 적용됐다. 화

아시아나, 日 고베 신규 취항… 한일 관광수요 대응

낮 12시 출발… 주 7회 운항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고베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한일 관광 수요 확대 대응에 나선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지역 항공 수요를 고베까지 확대해 여행객들의 선택지를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인천~고베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낮 12시 출발해 고베공항에 오후 2시 도착하며, 귀국편은 고베공항에서 오후 3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5시 도착한다. 운항 기종은 차세대 단거리 주력기인 에어버스 A321NE

O가 투입된다.

고베는 오사카와 교토 등과 함께 간사이관광권을 형성하면서도 온천과 역사, 미식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갖춘 도시다. 아리마 온천과 세계문화유산 히메지성, 고베 포트타워와 하버랜드 등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고베규와 고베 푸딩 등 미식 콘텐츠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번 신규 취항은 일본 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의 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방한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을 찾는 해외 관광객 전반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은 가까운 거리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앞세워 대표적인 해외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엔화 약세와 지역 관광 콘텐츠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일본 지방도시로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올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의 해외여행 목적지가 한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기 여행지인 고베 노선을 신규 취항함으로써 간사이 지역 여행객들의 다양하고 편리한 여행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새롭게 열린 고베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일 노선 경쟁력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미술관, '프리즘, 일렁이는 무한' 개막

김용관·김진희 등 3040 작가 참여

포스코미술관이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3040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포스코미술관은 기획전 '프리즘, 일렁이는 무한'을 오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다양한 색으로 나뉘는 모습에 착안해 예술적 상상력이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김용관·김진희·송주형·신준민·

윤이도·진종환·한낮 등 3040 작가 7인이 참여한다.

김용관은 포스코센터 유리 외벽을 활용해 빛과 구름의 흐름을 시각화한다. 김진희는 일상에서 포착한 빛을, 송주형은 영상과 사운드를 결합한 공간을 선보인다. 신준민은 기억과 실재가 겹치는 풍경을, 윤이도는 이쑤시개를 활용해 사라져가는 공간을 표현한다. 진종환과 한낮은 각각 자연의 변화와 햇살을 색채와 사진으로 담았다.

전시 개막일인 2일에는 포스코그룹

이 소장한 백남준·구보타 시게코의 '철이철철'(1995) 복원 완료를 기념하는 특별 공연도 열린다. 백남준 서거 20주기를 맞아 전자음악 아티스트 뿌레카(BBUREKA)와 미디어 아티스트 송주형이 협업한다.

포스코미술관은 이날 강남구 주요 갤러리·미술관이 참여하는 '청담나잇'과 연계해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포스코그룹 직원으로 구성된 도슨트 봉사단도 전시와 주요 소장품을 해설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롯데百貨, 영등포역사 상업시설 운영권 확보

최소 10년간 안정적 영업 가능

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운영권을 다시 따내며 향후 최소 10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장기 운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계약 기간 한계로 미뤄졌던 대규

모 리뉴얼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오전 영등포역사 사용허가를 위한 신규 사업자 모집 4차 공개입찰의 개찰을 완료하고 롯데백화점(롯데쇼핑)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영등포역사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해 세 차례

에 걸쳐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4차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단독 응찰하며 최종 사업자로 낙점됐다. 4차 공모 지침서 기준 예정 입찰료는 최초 입찰가(약 287억 원) 대비 20% 낮아진 229억6000만 원이다.

이번 낙찰로 롯데백화점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 대대적인 점포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김서현 기자 seoh@

면의 경계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 TV 디자인에서 나아가 제품의 구조와 소재 자체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TV가 단순한 시청 기기를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디자인 오브제로 기능하도록 했다.

오는 3일 열리는 디자인 토크에는 삼성전자 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이 참여한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과 AI 시대 디자인의 역할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Design is an Act of Love"는 디자인이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우리의 원칙"이라며 "삼성전은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다양한 디자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한림대학교 의료원

이재준 의료원장 취임

이재준 한림대학교 교촌천성심병원장이 제21대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사진)으로 취임해 한림대학교 의



료원 5개 병원의 진료·연구·교육 시너지 창출과 미래 의료 도약을 이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제21대 한림의료원장에 이재준 한림대천성심병원장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 31일까지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2000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천성성심병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질 향상, 연구역량 확대를 이끌었다.

이재준 신임 의료원장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병원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하 5개 병원의 강점을 하나로 모으고,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협력과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감사원 △미래전략감사국장 전형철 △심사관리관 김택현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김찬수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직위승진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기획개발과장 최영기 △국립종자원 문경덕 △국외훈련 연장(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정재원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진승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송주빈

◆호서대학교 △특임부총장 이종원

부음 ▲최길순씨 별세, 이형희(SK㈜ 부회장)씨 장모상 = 1일 별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3일. 02-923-4442.

▲강순덕씨 별세, 김정호(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1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3일. 062-521-4444